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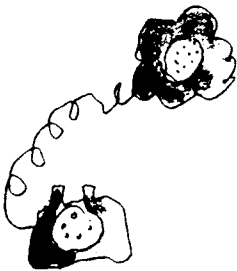
문예코너

제9회 불조심 여성수필·수기
현상모집 최우수작

일요일의 전화

허 선 심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311~13)



추석을 앞둔 터라 이것 저것 샘플을 뽑아보고 새로운 원단을 들어 놓는등 작업에 여념이 없던 지난해 8월 말경이었다. 일요일이라 모처럼 늦잠을 달게 자고 마약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걸려온 전화-큰일났다고 울먹이는 명희의 목소리를 확인하는 순간 어떤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스치고 가슴마저 후들거렸다.

“뭐라고? 공장에 불이?”

무엇을 어떻게 걸쳐입고 문 밖으로 뛰어나왔는지 모른다. 거리로 내려서서 마치 정신나간 사람처럼 아무거나 지나가는 차를 붙들려고 했지만 모두 이상스레 보이는지 그냥 썩쟁 달려갈 뿐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겨우 차 한 대를 붙들고 청계천 7가를 반복하는 목소리는 마른 수수깡처럼 서걱이고 있었다. 꿈많은 소녀로부터 아동복을 만들어 파는 제품쟁이로, 두 아이의 엄마가 되기까지 변신한 나의 모든것-지나간 7년여의 세월이 천연색 필름으로 돌아간다.

아직 나이 어리고 세상 물정도 모르던 처녀애가 달랑 몇십만원을 손에 들고 장거리에 서던 날, 얼마나 어쭙잖은 모습이었던가.

소꿉장난이나 할만한 가게를 얻어두고 샅일을 맡겨 겨우 만들 어낸 3~4가지의 아이들 옷을 붙들고 씨름하던

일. 하지만 남들보다 허리띠를 졸라매었고 손발이 퐁퐁 볼도록 뛰어나던 덕에 점차 자리가 잡혀갔고 청계천 변에서 남대문으로 가게도 옮겨질 수 있었다.

「로얄베비」의 상호 또한 사람들에게 낮익어갔고 단골로 들리는 손님들은 속마음까지 터놓을 정도로 가까워졌다.

새벽 3시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고 밤 9시가 넘어야 귀가할 수 있는 나의 어제가 있었기에 미싱 3대로 시작한 공장의 규모도 20여평으로 늘어났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30여명이 되어 제법 큰 규모로 발전 했다.

추석을 앞두고 일손은 더욱 바빠지기 마련이고 물건준비는 또 얼마나 착실히 해 왔던가?

“7가 어디쯤입니까?”

“네? 저쪽에 대주세요.”

피땀 환상에서 깨어난다. 줄달음친다. 마약 골목을 들어선 순간 시커먼 물체가 눈앞을 가로막는다.

불은 언제 진화되었는지 시커먼 건물의 뼈다귀가 시야를 차단하는가 싶더니 연기증이 나고 정신을 잃었다. 얼마만에야 정신을 차려보니 누군가의 팔에 안겨 있었다.

“언니?”

“어떻게 되었니? 모두 어떻게...?”

“근처 병원으로들 실려갔어요.”

“불길이 4층까지 번지지는 않았지만 가스를 먹고 뛰어 내리다가 많이들 다쳤어요.”

2층에 있는 장난감 공장에서 장난감 총에 쓰이는 화약을 운반하다 잘못 해서 불이 났다고 했다. 2, 3층 벽이 모두 날라가버리고 유리 조각 파편들만 여기저기 흩어진채 시커먼 건물은 흉칙한 골격을 드러낸채 허죽이고 있었다. 안에서는 아직도 검은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고 계단은 침범될 정도로 불이 흥건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비집고 안으로 들어 서려니 누군가가 내 팔을 붙들었다.

제일병원, 이화여대부속 병원을 거쳐 서울대부속병원까지 응급실마다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을 해집고 다녔으나 낮익은 얼굴들은 눈에 띄지 않았다. 응급실 문을 마약 밀고 나오는데 재단 보조를 하는 승회가 옷을 잡아당긴다.

“어떻게 된거니?”

“저기들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치료도 받아보지 못한채 앓고 있었다. 16명의 아이들 모두가 속수무책으로 보호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던 참이었다.

치료비를 먼저 지불해야 응급 치료도 해주더니- 국가 최고의 의료기관에서 인간대접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인가, 만에 하나 기다리는 동안 환자가 숨이라도 거두는 일이 있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당신들이 의사시고 백의의 천사들이던가요?”

“어떻게 이럴수가 있어요?”

자기들은 병원 규정대로 할 뿐이라고 냉담하게 말하는 그들 앞에서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와중에도 챙겨간 돈을 지불한 후에야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다행히 우리 애들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불이 났음을 알고 성급하게 뛰어내리다 팔, 다리를 다쳤거나 유독가스를 맡아 어지럼증이 나고 구토를 했다. 4층에서 그대로 뛰어 내려

당선소감

1983년 8월 청계천 7가에 있는 장난감 공장에서 불이 났다.

장난감 공장은 2층이고, 우리 제품공장은 4층에 위치하고 있어 적지않은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여러가지 어려움을 뚫고 나온 지난날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으나 더 큰 피해를 입지 않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앞으로 닥칠지도 모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까지 하게되었다.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슬기로운 생활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죽었을 거라던 경옥이만은 멀쩡하게 돌아다녔다. 겁도 없이“뒀다”고 고함을 치고 몸을 날렸는데 밑에 있는 장난감 상점 사람들이 여러가지 물건을 받쳐 주어서 무사할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옆의 지붕으로 뛰어다 다시 내려뛰는 곡예를 했는데 모두 젊은 탓인지 크게 잘못되지는 않은것 같았다.

제일 많이 다친 사람은 시다로 일하시는 아줌마였다. 연세도 40이 넘었고 몸까지 비뚤하시니 2층에서 뛰어어도 8층은 입원해야 한다는 진단이나 왔다. 모두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다리를 뼈거나 팔이 부러졌고 놀랜터라 후유증이 컸다.

낮 뉴스를 듣고 달려오신 보호자들, 연락을 받고 달려온 친척들이 곁에서 자질구레한 일들을 처리해주었다.

모두가 맨발이라서 우선은 근처에 나가 운동화를 20여켠레 사들였다. 아무발에나 갖다 끼워주고 웬만한 사람들은 며칠분씩 약을 지어서 집으로 돌려보냈다. 갈 곳이 없는 지방아이들은

우선 우리집으로 실려갔다. 공장에서 먹고 자던 터여서 당장 갈 곳도 없고 당분간은 치료를 받으러 다녀야하기 때문이다.

병원에 남은 사람은 아줌마와 재단사, 그밖에 3사람이 더 있었다. 그리고 원단을 들어가려던 100여만원이 하룻밤 새에 어디로인지 달아나버렸다.

불을 낸 장난감공장 주인은 아직 젊은 총각이었다. 추석을 앞둔 터라 그 공장에서도 장난감 만들 재료를 많이 구입해 놓은 모양이다.

문제의 장난감 총에 끼우는 화약도 많이 들여놓고 그것을 잘못 취급해서 그토록 큰 사고를 낸 것이다.

건물이 부서지고 태운것도 문제지만 유리 파편으로 완전히 실명한 사람도 있고 한쪽 눈만 실명한 사람등 부상자가 많이 발생했다니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지만 불을 낸 공장 주인은 불들러가고, 빌딩주인 역시 자기의 손해를 들먹일 뿐 제3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내 입장에서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여기저기 동분서주하며 내게 할당된 매일의 치료비를 감당해야 했고 연신 먹을 것을 사두고 병원 문을 두드려야 했다.

그렇잖아도 허약한 체질인데 무엇을 먹어보려 해도 입안이 깔깔해서 반지를 앓았고 정신을 차리려 할수록 솟구치는 눈물만 시야를 뿌옇게 흐려놓곤 했다.

밤낮없이 일을 해대도 어려운 형편에 공장은 가동을 중지하고, 가게에는 내놓을 물건조차 없이 나는 병원이나 들락거리고 있음을 어찌랴. 지쳐빠진 몸으로 집에 들어가면 10여명의 환자들이 이쪽저쪽 길게 누워있으니 잠시 인들 편히 몸을 붙이고 있을 수도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월급날은 다가오니 급여 또한 어떻게 둘러대든 제때에 지불해야 한다.

신이 가혹하구나, 내겐 —.

간혹 그런 생각이 들라치면 머리를 흔들었다. 얼마나 천행인가. 그러기에 그 정도의 사고뿐이지. 만일 누구 한사람이라도 몸을 못 쓰게 되었다거나 크게 잘못되었다라면 어찌 하겠는가. 감사해야지. '범사에 감사하라'

는 성경말씀도 있잖은가. 내겐 감사하는 생활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 같다. 아무것도 가진 것없는 내가 지금의 위치에 서기까지 아무런 사고없이 돌보아 주신 분께 큰 절이라도 올려야 하잖은가?

서로가 고의적인 일이 아니므로 누구를 원망할들 소용이 있으리오마는 아무리 어린이 장난감이라고 하나 위험물을 안전장치도 없이 취급했다는 게 납득이 안간다. 그리고 장난감이 라지만 교육적인 측면도 생각할 일인데 흥미본위로만 그저 만들어 파는 일에 급급한데 우리 사회의 병폐가 있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작다면 작은 규모라지만 나도 30여명의 식구들을 가진 공장을 가동하면서 그 흔한보험 한가지도 들어놓지 않았으니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가! 전혀 의식없이 안일하게만 살아온 자신이 부끄럽다.

무서우리만큼 몸서리가 쳐지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사고를 대비해서 최선을 다함은 물론 만에 하나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서 이제부터라도 준비를 해야겠다.

오랫만에 공장에 들렀다. 화마가 휩쓸고간 거리는 추적추적 내리는 비 탓인지 더욱 유산하기만한데 지하실 다방 아가씨들은 물을 퍼 나르느라 야단

들이다. 몇 번씩이나 찾아와서 권하던 보험회사원이 생각한다. 그때 한발 다가서서 들어뵈었다면 이 처럼 허둥대지 않고도 큰 손해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었을텐데 뒤늦게 후회하는 마음만 씩씩하다.

물건들을 챙기고 정리도 하며 생계에 잠긴다.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보험에 가입해야겠다.

매사에 미리 예방 대책을 세워두는 게 좋다는 것쯤은 알면서도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적다. 놀람도록 발전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일임을 이번에 실감했다.

안전을 위해서는 점점, 또 점점하는 일을 잊지말고 조금도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노력하여 벌고, 아껴쓰는 습관에 익숙해 진다해도 작은 불씨 하나만 소홀히 하면 모두가 무위로 돌아가지 않는가?

돌아오는 길에 보험회사에 들렀다. 문의를 하니 친절한 안내를 해주신다. 우선 그리 많은 액수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가입하기로 했다.

마음이 조금은 홀가분해졌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보다 귀한 것들을 체험하고 더 크게 잃지 않게 해 주신 절대자에게 감사를 드린다. 분명히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나를 기다려주리라.

탈



박 은 신
(점검1부)

오늘도 열심히 작업을 한다.
때론 너무 작아
늘 불만족의 연속이다.
이곳 저곳을 뜯고 붙이고
이러길 몇 십해...
완전한 탈을 만들기 위한 집념에 불탄다.
위선에 거짓을 더하고
그 위에 허영과 사치를
그리고 자만과 교만을...

이 모든 걸 더하여 반죽을 하고
열심으로 본따고 틀을 만든다.

이젠
탈이 탄생되는 날
어떤 작은 흥분을 감추며
간절한 마음으로 탈을 접해 본다.
그러나
아! — 저건
(내 자신...)